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어
이관형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장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 오늘 만나는 이주희 교수다. 그의 말은 약간의 속도감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에게 긴장과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는 사태의 심각함에서 어이없음을 발견하고 표현한다. 그러니 진지한 말을 해도 웃을 수 있는 것 같다. 사태가 아무리 심각해도 어이가 없으니 웃을 수밖에. 암튼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기분이 좋다. 유머 코드가 맞는 것 같다. 아니 '맞는다'는 상호적인 것이므로 그건 아닐 것 같고, 뭐라고 해야 할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는 물리법칙을 신체로 느끼는 요즘이다. 원인 모를 어지럼증으로 인해 인터뷰 날짜를 좀 미뤘다. 장소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대안 사무실로 바꿨다. 흔쾌히 양해를 해주어서 감사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다. 인세만 십 수억을 받았다고 하니, '낙양의 지가(紙價)를 올린다'는 고사(故事)가 과장만은 아닐 듯하다. 이어 그만큼은 아니지만 '공정하다는 착각(원제: 능력독재 the tyranny of merit)'도 적잖은 반향을 일으킨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능력독재' 국가 중 하나인 걸로 미루어,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다.

이주희 교수는 최근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이라는 책을 내놓는다. 능력독재, 혹은 능력주의의 전횡과 지배가 낳는 구조적 차별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차별이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실제로 어떤 감정을 낳는지에 관한 연구는 적다.

이 교수도 자신이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자이지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조라는 큰 이야기가 차별 받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구체적 서사를 통해 어떻게 관철되는지는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BIEN 대회 장소가 이화여대였는데, 교수님께서 장소 선정, 대회지원 등과 관련해서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때가 때인 만큼 기본소득을 주제로한 국제대회 개최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았을 것도 같은데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는 없었나요?

-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해외 학술대회 개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해당 학술대회에서 우리 대학 소속 발표자가 2명 이상이 돼야 대회 지원금이 나오는데, 저 말고 발표자 한 분을 더 발굴해야 했거든요. 그게 좀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게 되어 저도 좋았습니다.

최근에 책 내셨잖아요?

- 예,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이요.

관련해서 새로 나온 그 책 앞부분에 본인의 과거사를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교수가 되셨는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성장과정이랄까 포함해서 말씀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그 책에다 썼듯이, 부모 뽑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남녀평등이 적어도 의식차원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7, 8십년대 한국 사회는 성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녀차별을 겪으며 살진 않았습니다. 아니 잘 모르고 자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집안 분위기에 더해서 여대를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느낄 수 있었던 자유로움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예를 들어 가부장제가 주는 억압이라든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대학의 교수 상당수가 여성이다 보니 저한테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목표는 교수 되는 게 아니었습

니다. 저는 원래,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탐정 같은 게 되고 싶었어요. 초중고 내내 어마어마한 양의 추리소설을 읽었고, 나는 탐정이 돼야겠다. 탐정이 될 수 없으면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터investigative reporter라도 되야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탐사기자?

-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딸을 너무 잘 아는 인물이어서, 식사 때마다 '너는 왜 남의 뒤나 쫓아다니는 기자가 되려고 하느냐? 교수가 되는 게 좋지 않냐'고 유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대학에서 여성 교수를 많이 보게 되니까 그것도 한 이유가 된 것도 같아요. 솔직히 그 당시 전문직을 가지고 싶은 여성에게 선택지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꿈이 바뀌었던 거죠. 아무튼 제가 당시 분위기와는 다르게, 좀 특별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자 형제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딸을 하나 낳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나 보더라구요. 차별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각별한 관심과 우대 속에 살았다고 할까요. 학교에서 여성학을 배울 때, 제 관점으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만 써 있어서 조금 지루했을 정도니까요.

말씀 들어보면 학창시절 내내 차별을 겪거나 느끼시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차별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셨는지요?

-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유학 갔다 돌아오자마자 한국 사회의 현실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일자리 찾는 것부터.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아버지는 한국 사회가 이런 걸 알았을 텐데 나를 그렇게 키웠단 말인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죠. 그래서 귀국해서 초반에는 이런 사회에서 딸을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키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아주 잠시 흘러가는 생각이었고,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해요.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자신감 같은 것을 키워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할 걸 잃어버렸는데, 학교 때 혹시 학생운동 하셨나요?

- 글쎄, 이것도 아버지 때문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딸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예를 들어 저한테 강압적으로 '야, 데모 같은 거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이랬으면 제가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되었을지 몰랐을 텐데. 정말로 틈만 나면 애원에 가까운 통사정을 하셨어요. 제발 데모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착한 딸이네요.

- 착한 딸은 아니었고요. 아버지도 피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물론 학생운동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게으르고 사회의식이 부족해서 일 겁니다.

사회학과인데 사회의식이 부족하셨군요. (웃음)

- 네. 그랬습니다. 그에 더해 내가 데모할 자유를 위해 아버지의 사업할 자유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유지요. 보통 딸들은 어머니와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저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똑 같이 아주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잘하셨네.

- 왜요?

저는 이대 82학번 여학생이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그 애는 머리를 깎였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집에서 못 나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여학생들은 학생 운동할 때 남학생들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학교 4학년때, 그때가 8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학생운동 접고 본업으로 돌아가던 때인데, 저는 오히려 그 때 혼자서 소위 '의식화'가 된 거예요

남들 그만둘 때.

- 남들 그만둘 때 필이 꽂혀 가지고.

오히려.

- 학생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미안하

기도 하고, 빚진 감정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지도교수도 진보적이라할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된거죠.

유학은 어떻게 결심하신 거예요?

- 유학은 그냥 정해져 있었던 거죠. 아무튼 대학교수가 되야 한다고 아버지가 맨날 얘기했으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대학 이름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튼 저는 뉴욕시에 있는 콜롬비아에서 어드미션을 받았고, 거기로 그냥 가려고 했어요. 거기에 친척도 많았고요. 근데 나중에 이대 여성학과 교수가 되셨지만 당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강사를 하시던 조순경 선생님이 계셨는데, 위스콘신에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가 있는데 거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저도 콜롬비아 교수진하고 계속 비교를 하다가 그냥 위스콘신으로 가자, 그래서 에릭 라이트를 보고 그 학교로 갔고, 결국 그 분이 제 지도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실용적인 데에 관심이 있어서 노사관계를 거의 복수 전공을 했어요. 노사관계 공부할 때, 볼프강 슈트렉Wolfgang Streeck하고 조엘 로저스Joel Rogers라는 교수 두 분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 예를 들어 위스콘신 리저널 트레이닝 파트너십The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 이라고 한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된 건데.

80년대 한국 사회 여공(女工) 현실 보면서 노동과 차별 연구로 방향 정해

WRTP요?

- 네. 당시 디트로이트에는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밀워키시의 공장에서 부품을 많이 제공해요.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흑인이거나 여성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일할 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임금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일을 했어요. 사용자는 노동자를 훈련시킬 동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훈련시키고 나서 다른 데로 가면 손실만 보니까요. 그래서 비영리단체인 WRTP가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단체, 밀워키시를 연결해서 트레이닝을 해주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그 두 교수들이 했어요. 제가 그들의 RA(연구조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닙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What Do Unions Do?)로 유명한 하버드의 리처드 프리먼Richard B. Freeman이라는 경제학자가 PM이었던 독일의 노동자평의회works council를 미국에 수입하는 일환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조교를 하던 경험에서 정말 많이 배웠구요. 물론 구조주의 계급 연구자였던 지도교수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아 유학갈 때 학교를 바꾼 결정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이후 귀국하시고 노동 연구를 하셨는데, 이대 가시기 전에 노동연구원에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왜 노동 문제에 천착하시게 되셨을까요? 아까 WRTP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냥 가셔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노동을 연구하게 됐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 학생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질문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냥 간단히 이렇게 답합니다. “그때 사회학에서는 그것밖에 연구를 안 했다.” 고요.

그런가요?

-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독재 정권 내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부채의식이 해소가 안 된 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동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학교 때부터 노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미진하다는 감정이 남아 있어서 유학 가서도 노동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계급과 노동은 연계된 문제들이고, 다행히 노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훌륭한 교수진들이 있어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노동은 삶의 기본이잖아요? 대학교 때,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공장에 취업해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미국 갈 때도 그 책들을 들고 갔거든요. 특히 여성들, 여공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많이 읽어봤어요.

우리 사회가 요동치던 시절이었으니까. 유학을 가셔서도 결국은 당시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노동이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선택하시게 됐던 것 같네요. 여기서 책 얘기로 다시 돌아와보죠. 책 제목이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이잖아요.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차별을 연구한다고 할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덜 주고 얼마나 착취하는지에 대한 구조분석들이 주로인데, '감정'을 끌어들인 것이 신선했습니다.

- 일단 책 자체는 제가 기획해서 제안한 게 아니었어요. 글항아리 출판사 이은혜 편집장님이 어느 날 그냥 이메일을 주셨어요. 책을 내고 싶다, 저랑. 그리고 그 때 편집장님이 주신 제목이 '차별받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그 제목을 봤을 때는 재미있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마음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쓸 수는 없어서 구조와 감정을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SSK(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연구 지원사업)할 때 양적분석도 하고 질적분석도 해서, 불안정 노동자 90명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FGI요?

- 아니요, 1:1 면접이었어요. 제 프로젝트 포닥 선생님들하고 연구조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물론 질문지 만드는 작업은 제가 직접 주도했고요. 근데 인터뷰 진행한 분들이 저 한테 그러는 거에요. 불안정 노동자라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도대체 왜들 이렇게 착하세요?'라고. 우리가 최저임금이나 노동조합 관련 질문도 많이 했는데,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불안정 노동자면 분노를 해야 할 것 같잖아요? 월급도 적고 처우도 그렇고. 아마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분노 대신 이렇게 적응해서 사시는 것일까?" 아니 이분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불만족을 느껴야 노조를 조직하든지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을 때는 고소도 하고, 뭐 이렇게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영세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사업자를 되게 이해하고 걱정해 주시는 거에요. 본인들이 어려우신데도. 그때부터 감정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차별 받는 사람들, 지배 헤게모니에 의해 체념-적응-혐오 감정 나타내

제가 지구의 회전운동(어지럼증) 때문에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목차하고 앞부분만 좀 봤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면 남 탓을 하거나 구조 탓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자기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프랑스 어떤 분(스테판 에셀 Stephane Hessel)이 '분노하라'라는 책도 쓰시긴 했는데 분노를 안하고 체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을까요?

- 네,

제가 보지 못해서, 읽어봐야 겠네요.

- 예, 거기 4장까지 나아가시면 제가 '신념체계'라고 명명한 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는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멸칭과 연결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책에는 테오본Göran Therborn, '테르보른'이라고 한국에 번역된, 그분의 이데올로기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여러 방식 중에 헤게모니hegemony가 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거의 같은 개념이죠. 비록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안에서 적응하고 살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 그 헤게모니라는 게 무서운 점은 말씀드렸듯이 강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동의와 강제잖아요, 이데올로기.

- 그렇죠. 근데 동의가 부각되죠, 헤게모니 하에서는, 강제는 그걸 벗어났을 때 얘기고. 책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쓴 부분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때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준다는데 왜 이렇게 정규직 노조 반발이 많을까? 저도 당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협의체에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언젠가 운전 중이었는데, 비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터뷰가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그 분이 말하는 내용 자체보다 그 목소리 톤, 그 태도, 그런 것을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톤은 이것(정규직 전환)은 '원래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음,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뭔가 죄 지은 사람 같은 목소리인 거예요, 정규직화 시켜 달라는 게. 그래서 '이건 뭐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에 그 부분에 대해 썼습니다. 그러니까 헤게모니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정'이라는 컨셉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차별을 시정하는 것도 공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차별을 시정 안 하는 게 공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강압적으로 '야, 너네들 뭐, 어떻게 비정규직을 정규화해주나? 안 돼' 하는 식으로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우리 사회 능력주의에서 그렇게 중요한) 시험도 안 봤는데, 어떻게 정규직화를 해주느냐?'라고 하거든요. 차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시험도 안 본 내가 그런 걸(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건 공정한 게 아닐꺼야'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차별적 행위가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것으로 뒤바뀌는 그 과정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헤게모니에 조금 놀라고 당황하고 조금 좌절했다고도 할 수 있죠.

저도 학교에서 정의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프로 운동선수나 아이돌 돈 많이 주는 게 정당한 일이냐?"고 물으면 백이면 백 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당하냐니까 '노력해서'라는 거예요. 받는 액수가 일반 직장인 보다 수백배가 높은데, 그 사람들이 수 백 배 더 노력했나요? 물으면 저 사람 뭔 소리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 제가 능력주의에 대해 책에서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다루었어요. 테르보른의 이데올로기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에고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치면 그거

는 자기의 계급 정체성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입니다. 타자 이데올로기는 다른 계급과의 관계 설정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인데, 예를 들어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에고 이데올로기라면 능력주의, 열심히 하는 것, 성실함, 창의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르주아의 전유물이고, 타자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테르보른은 이데올로기가 승인과 제재라는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행위와 실천에 영향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청년들은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20대가 될 때까지 여러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승인되는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그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호명되게 되죠.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예컨대 지게꾼이나 막노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열심히 해, 너 안 그러면 저렇게 살게 된다'라고 끊임없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주입하고 결국 체화된다. 결국 공부 못한 건 내 탓이되고. 이런 식이라는 말씀인가요?

- 그렇죠.

그것에 따른 차별은 정당한 거고, 내가 시험 공부도 못하고서 시험도 안 봤는데 인국공의 정규직을 노리는 거는, 이거는 거져 먹겠다는 심보다.

부분적 사실이 진실은 아니야, 그럼에도 진실로 호도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적 신비화

- 그렇죠, 그렇죠. 제가 책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호명이 이루어지는 방식 중에는 신비화mythtification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게 그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한 두 사람 쯤은 있잖아요. 바로 그게 신비화 과정이죠. 사회 구조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거나 경기가 나빠서, 아니면 구조조정으로 가난해지는데, 그런 건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다시 말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어떤 친척 중에 게으른 사람 하나 보기는 굉장히 쉽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게으르면 저렇게 가난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이게 완전히 거짓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는 있는데 진실은 아닌 거죠. 근데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신비화 과정이 작동할 수 있다고 저는 그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이놈의 새끼, 내가 그렇게 공부해라 그랬는데 편편히 놀더니,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라고 하지요. 그러고 나면 자식은 '이래서 부모가 나보고 공부하라고 했구나'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가 내 새끼는 나처럼 만들지 말아야지', 하면서 돈 벌어서 사교육으로 애들을 내몰고.

- 그래서 그런 사회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라도 그 물적인 강제enforcement 기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경험이 여러 사람에게 계속해서 되풀이 될 때, 이게 공부가 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에 변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조금 설명을.

-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바뀌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조선시대, 그 이데올로기가 안 바뀌었다면 지금도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걸까요? 지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옛날에 비하면 극적으로 바뀌었거든요.

- 그거는 바로 물적인 토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양반, 노비가 구분된 봉건사회에서 하인이나 여성이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화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생겨났고 여성이 일

을 하기 시작을 했죠. 돈을 벌었죠. 더 이상은 남성한테, 예를 들어서 피부양자로 같이 살지 않아도 되고, 혼자서 돈을 벌어서 다른 길도 열리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조선시대에는 그게 너무나 강력한 이데올로기였죠. 왜냐하면 그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으면, 즉, '결혼 같은 건 왜 해?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여성이 있었다면 그냥 길에서 굶어 죽었을 거잖아요. 지금은 '결혼 같은 건 왜 해? 내가 벌어 살아야지' 해도 길에서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 저임금을 받지만 그래도 자기 삶을 살겠다고 하면 못 살 정도는 아니니까.

- 제재의 강도가 극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물적 토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도, 예를 들어서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더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게 될 때, 그런 인구가 늘어날 때, 그리고 그런 경험이 축적될 때 그 말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데올로기적인 주입의 효과가.

열심히 해봐라 그러는데, 요즘 학생들 말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되는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맞죠,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도 물적 토대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건 4차 산업혁명이고, AI고, 예를 들어서 예전 중, 저기술 노동자에게 그래도 있었던 일자리들이 빨리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아마 그때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다시 조명될 수 있겠죠.

능력주의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물적 토대 변화하는 중, 기본소득 등 새로운 가능성 모색되어야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차별받는 감정'이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을 차별받는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별받고 있다는 걸 느끼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바깥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 저의 책의 목적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능력주의에 영향 받은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도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감정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체념인데요, 헤게모니에 의해서, 차별의 원인이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지'라는 거. 그 다음에는 '적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순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거는 여성 문제를 얘기할 때 한 건데, 너무나 압도적으로 조직 간 모방에 의해서 여성을 고용하지 않거나 승진을 안 시키거나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여성은 적응 기제를 발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 기제 중에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거거든요. 차별이나 불평등을 인지한다 해도, 그런 외부 환경적 맥락에 큰 문제의식 없이 맞추어 살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행위에는 관심을 잃게 되는 것, 그 대신 정치적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기만의 미시적인 삶을 구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혐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을 받는데 그 차별을 행하는 사람한테 돌리기에는.

너무 세.

- 나한테 올 위험이 너무 큰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은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그거를 투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 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남성 청년 일부가 예전에는 내 경쟁자가 아니었던 여성 청년에게 적대감을 보인다든지, 혐오감을 보인다든지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 모두가 별로 바람직한 감정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차별하는 구조, 구조적 차별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감정이 유도된 것에 불과하니 이런 감정을 유도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더 적절한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는 그에 분노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감정을 발산하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혹시 미국은 어떻습니까?

- 미국, 어떤 거요?

아니,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기도 했고, 혹시 한국과 미국에서 이 세 가지 감정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보편적인 현상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일단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과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성 문제에 있어서 그 나라는 시장 원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시장, 그게 완벽히 바람직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은 별로 성차별 할 의욕이 없어요. 게다가 복지도 안 해 주니까 여성이 이민노동자를 고용해서 아이를 맡기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일만 잘해주면 굳이 성차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임금 격차도 있고 유리천장도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덜하죠. 혐오라는 차원에서도 거기선 주로 이민자 혐오, 유색인종 혐오가 주이고 이유는 우리랑 비슷하죠.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민자가 일자리 가져간다고. 그런데 우리처럼 혐오가 광범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노인 혐오도 있고, 장애인 혐오도 있고, 비정규직 혐오도 있고, 빈자에 대한 혐오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가 혐오의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가 인종적 배타성이나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더 정확하게는 능력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경멸과 폄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뀐 거군요. 우리는 혐오가 자기를 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미국은 차별을 받으면 총 들고 나가서 갈기고, 우리는 자살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사회도 그렇지는 않은가보죠? 요즘 보면 묻지마 칼부림도 많은데요, 혹시 그런 내용은 없을까요?

- 아마 책의 혐오 부분에서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요. 묻지마 폭행, 총기 난사 같은 거는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할 때 나타납니다. 서구 발전된 국가들이 복지를 제공하는 이유거든요. 우리도 좀 비슷해진 거죠. 그때 칼부림한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한 것 같아서 화가 났다' 이런 얘기했던가요?

그렇습니다.

- 바로 그거죠. 부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가 더,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빈부 격차도 심해지고 우리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합니다.

저도 칼부림을 무차별하게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미국화, 서구화라기보다는 미국화인데, 미국과 비슷해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의사들이 진단술과 치료법은 같이 가지만 양자의 발전은 그리 대칭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치료법도 많이 발전했지만 진단술은 훨씬 발전했다고 합니다. 비단 의학

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사회 문제에 대한 진단은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데, 막상 치료법 이랄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아까 기본소득 얘기도 하셨고요. 이런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적극적 우대조치 등 우선 도입돼야

- 가장 기본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의 통과이죠. 아직도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 축은 경제계 및 일반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학력이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차별이냐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이와 같은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면 본인들이 운영하던 기존 방식, 편한 관행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력이나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하지말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하지 말라는 것이지 대졸이나 고졸이나 무조건 똑같은 임금을 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합리적 이유 없이 너무 큰 격차가 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러면 그 합리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종교계, 일부 종교계가 반대하는 거죠. 성적 지향이나 그런 게 들어가니까요. 저는 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 더 힘들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경제계의 반대는 돈, 비용 이런 것의 문제인데, 종교계의 반대는 세계관이나 신념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우트(Doubt)'라는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여, 책에서 호소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길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네요. 차별금지법 다음으로는 '적극적 조치'가 있죠.

어퍼머티브.

-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관련해도 굉장히 논쟁점이 많은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적극적 조치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들이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남녀고용평등법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도 크게 개선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도입돼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적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조치라는 제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적극적 조치는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적극적 조치로 인해 사회 소수자 집단 중에서도 중간 이상에 있는 집단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렇죠.

-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계는 있지만 당연히 도입해야 되고, 도입은 하지만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 책에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이라는 두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차별이 불평등보다는 더 적은 개념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의 경우, 차별로 인한 불평등도 있고, 차별이 아닌 공정하거나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격차로 인한 불평등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책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 모든 것이 심각하게 주관적 판단의 영향을 받는 회색 지대로, 모든 형태의 불평등이 어떤 면에서는 불공정함과 공정함이라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간접 차별은 중립적인 인사 관행이라도 특정 소수자 집단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역시 차별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개념 하에서는 더욱 더 차별과 불평등이 회색 지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불평등이 너무 만연하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된 집단이 시정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가지지 못해서 차별도 또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 중에 기본소득을 제안을 했고, 그와 더불어 기본 서비스도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복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을 많이 비판하면서 스웨덴 같은 보편적 서비스, 복지 서비스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스웨덴

은 산업화 초기에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고, 그런 이유들로 사회보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거죠. 일자리도 제조업 중심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바뀌었는데 또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하자고 하면 그게 과연 가능할 지? 게다가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하려면 굉장히 잘 조직된 노동자 계급과 그와 연결된 진보정당이 있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스웨덴 모델을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웨덴 모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그걸 '기본서비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기본 서비스는 당연히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같이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저기술, 저학력인 사람들이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그냥 기본소득만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스웨덴에서 성공적이었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평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으니까. 기본 서비스의 양을 늘리면 기본소득의 액수가 좀 줄어들어도 괜찮잖아요. 의료, 교육, 공공주택 등에서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시장에서보다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고 건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가 같이 발전하게 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평등을 향한 노력을 해 갈수록 차별 시정을 할 수 있는 사회의 힘도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양자 택일 문제 아냐

마치 기본소득이냐 기본 서비스냐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잘못된 구도 설정이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서비스 필요에서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Kumar Sen, 역량 문제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역량 문제가 기본소득만 갖고 과연 해결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기본 서비스도 같이 병존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으로.

- 네, 그리고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시정하는 힘이 조금 약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고

하지만 저는 어떤 한 사회의 시민들이 공통된 경험을 하는 게 연대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로 제공되는 의료는 그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일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고급 서비스를 받고, 돈 없는 기본소득 받는 사람들은 그보다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 서비스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기본소득은 자유를 증진해 주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그 돈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두 개가 되게 아름답게 조화로운 개념이고,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는지 정말, 아니, 원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양자택일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둘 다 도입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예, 양자택일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소득 도입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강화부터 해야 되는지 기본소득부터 도입해야 되는지는 당장 닥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당신들은 말하느냐? 둘 다 필요하다? 그러면 좋지만 당장 제도를 갖춘다고 할 때 기본소득 도입 때문에 기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논리에 반대하는 데요. 그 이유는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기획하려는 그런 노력을 너무 배제하시는 것 같아서 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서비스, 예를 들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고용이 되면 그 사람이 소득세tax를 냅니다, 세금을. 임금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로서는.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본소득만 받고 고용되지 못한 사람을 액티베이트activate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면 바로 그런 서비스 자체로부터 소득,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막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어떤 사람이 가져가는 몫은 줄어든다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요?

- 네, 양자택일로 보는 분들은 사회정책을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 오히려 국가가 세수를 더 풍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사회서비스부터 해야 한다거나 기본소득부터 해야 한다거나 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의 논리로는. 그래서 양자를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가족한테 보육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줘서 일할 수 없었던 여성이 일하게 된다면, 이것도 다시 국가에 세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원이 부족하니 사회서비스만 해야 한다거나, 사회서비스는 충분하니 기본소득만 더 줘야 한다는 것은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인 것 같아요. 정 어려우면 양쪽을 똑같은 수준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수도 있고, 복지의 영역 별로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가 길항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보완관계에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도인데, 왜 양자를 자꾸 길항관계나 제로섬 게임으로만 보느냐,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물론 한 번에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떤 것도. 근데 이걸 가지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논쟁만 하고 있으면 생산적이지 못할 것 같네요.

사회학자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차별과 불평등이 지금 매우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 지를 예측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지난번에 BIEN대회에서 요크대 루이스 하그Louise Haagh 교수께서 각국의 코로나 대응을 분석하면서 한국과 스웨덴은 모범국이고 영국은 최악의 국가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래서 원래 자기 떡은 작아 보이고,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BIEN대회 참석했던 여러 분들이, 교수들이 한국을 꽤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별과 불평등 시정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그렇죠. 한국이 브라질하고 기본소득 월드컵에서 누가 먼저 이길 것이냐?

한국이 액수는 적지만 한 300% 이상 복지 지출도 늘렸고, 이건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없었던 사례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제가 이 책 가지고 강연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셔서 '제가 천공이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해 보자면, 저는 진보적 사회이론의 아름다운 점 중에 하나가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는 거거든요. 물론 후퇴할 때도 있고, 일시적으로 후퇴하고 아주 지루하게 기다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보하는 입장에서 그러므로 앞날은 당연히 다 좋아지겠다고 믿는 건데, 그렇게 긴 걸 물어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가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만들게 된 데는 계기가 있거든요. 스웨덴이 후발 산업 국가였고, 영국은 길드 체계가 무너지고 장인이 없어지고 하는 데에 수백 년이 걸렸지만 스웨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 저기술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연대의식이 강한 산별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들이 지원하는 사회민주주의당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스웨덴은 그렇게 너무 잘 기능하는 복지국가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소득을 빨리 도입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거의 기본소득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들을 갖고 있고 사회 서비스도 앞서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좋은 복지국가제도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회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빈곤도 발생하고 AI가 도입되고 일자리도 빠르게 분화되고,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저는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오히려 경로의존성이 적어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복지 형태를 더 빨리 도입할 수도 있겠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 후발주자라서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 등에서 유리한 측면 있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럽은 아직도 현금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카드 쓰고,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중국은 아예 카드도 없이 핸드폰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다. 마치 이것처럼 복지 후발주자인 우리가 더 좋은 제도를 더 빨리 도입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또 더 기다려야 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그런 길로 가는 게 저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그냥 기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소한 차이 즉 기본소득이냐, 사회 서비스냐 이런 걸로 너무 시간 낭비는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서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주다가 나중에 안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재부 비난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그 효능감을 사람들이 여러 번 느꼈으면 좋겠다고 계속 바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꺾였죠, 선거 결과도 그랬고. 근데 재난 지원금이나 부분 기본소득 같은 시도가 몇 번 더 일어난다면, 그런 효능감을 굉장히 많은 인구가 또 다양한 사회집단이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20세기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똑 같은 모델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나은 제도가 더 발견됐는데.

-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결합시키느냐? 재원이 아주 많으면 기본소득도 주고, 사회서비스도 하고, 다 좋다, 알겠는데, 물론 분

야마다 굉장히 정교한 기획과 선택이 필요하겠죠. 어떤 분야에는 기본소득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저는 보육에는 기본서비스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돈으로 주면 돈이 많은 집에서는 돈을 더 받고, 그나마 애기도 돈이 있어야 낳는데, 요새는. 이런 게 굉장히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중산층 수준에 맞춘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아동에게 부모의 낮은 소득이나 가족 간 문화자본 격차가 발생시키는 악영향을 줄여 보다 평등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주의자들이 우려하는 기본소득의 부정적 효과, 즉 여성들이 유급 노동보다 무급 가사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라는 그런 효과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 성평등하게 바꾸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현재 남성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아 (물론 이 성별임금격차도 꼭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무급 돌봄 노동에 더 많이 시간을 쓸수록 가구의 총 소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보육이 커버해주는 시간이 늘어나 가구가 써야 하는 총 돌봄 시간이 줄어든다면 오히려 남성이 돌봄 노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 두 차원의 복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충분히 의논해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유명한 말("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을 인용해 놓으셨길래 제가 앞으로의 우리 상황에 대해 낙관하시는 지를 확인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셨는데,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뭘 좀 해보겠다, 이런 것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가 네트워크에 참여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우리가 모두 길에 나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라, 아니면 나는 죽겠다'이렇게 운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 가능하면 우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 해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간기본소득>이 어떻게 누구에게 배포되는지도 궁금하네요. 회원만 보시는지 아니면 회원 아닌 사람한테도 보내주는지.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모아보아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